

‘금호타이어 정상화’ 이제 노사가 화답할 때

채권단 ‘한달내 노조 동의안’ 조건 차입금 1년 연장 노조, 사측 자구안 거부...24일 파업·상경투쟁 예고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차입금 1년 연장 및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젠 해결 주체인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자구안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을 꾀할 때라는 지적이다.

채권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안건 결의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가 체결되지 않으면 차입금 연장의 효력은 즉시 소급하여 상실하기로 한다”는 별도의 부

칙을 통해 노사 양측에 ‘충분하고도 합당한 수준의 자구노력’을 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호타이어의 조속한 정상화와 지역경제 발전,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먼저 고등분담에 나선 채권단의 결정을 존중하며 회사의 생존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22일 노조에 집중교섭을 요청하고 앞으로 노사간 진중한 협의를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도출해 기한 내에 채권단과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채권단의 결정은 실질적인 자구노력을 보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노사를 위해 채권단이 먼저 고등분담에 참여하고 충분한 논의를 위한 시간을

준 것”이라며 “이제라도 노사가 남은 1개월 동안 진정성 있는 자구노력을 통해 채권단과 시장이 요구하는 충분하고 합당한 수준의 자구계획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노조가 채권단의 입장변화에도 사측이 제시한 자구안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노사가 현재와 같이 자구안을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채권 만기 연장이 불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9일 ‘45기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오는 24일 예고된 전면파업과 상경투쟁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회사의 생존과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보다 강력한 투쟁을 통해 조합원들의 고등분담과 구조조정을 저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경영위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채권단과 경영진에 있기 때문에 조합

원들에 대한 책임 전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자구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고등분담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경제계에서는 노사의 대립으로 중국 매각의 위기를 간신히 넘긴 금호타이어가 또 다시 경영정상화에 난항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채권단이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채권 만기 연장이 불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에 주어진 1개월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노사가 갈등과 반목으로 허비한다면 1개월 후 금호타이어의 생존과 지역 경제의 미래는 물론 구성원의 고용안정까지도 장담할 수 없다”며 “노사가 집중교섭을 통해 회사를 우선 살리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등분담 수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더 편리해진 광주은행 인터넷뱅킹

조회·이체 전면 배치 활용률 ↑...스마트뱅킹 최대 2억원 대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1일 인터넷뱅킹을 전면 개편해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고객 설문조사와 그동안 은행에 접수된 니즈를 최대한 반영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첫 화면부터 은행 입장에서 마케팅과 경영 메시지 등을 배제하고 고객 입장의 편리성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조회·이체 등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요 기능과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금융상품을 첫 화면에 전면 배치했다. 또 당·타행 이체, 예약이체, CMS이체 등 고객이 구별하기 어려운 은행의 업무구분 같이 느껴졌던 이체 서비스들을 하나의 메뉴로 통합했고, 대량이체도 1000건까지 확대 적용해 편리성도 개선했다.

기업인터넷뱅킹의 경우 다양한 기업 고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복수결제 수직·수평 결제가 가능하도록 재구축했다.

특히 이번 개편에는 지능형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고객이 기존에 이용하던 패턴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주 이용하는 메뉴도 고객이 설정하지 않고 실제로 많이 이용한 메뉴가 자동으로 포함되도록 했고, 계좌이체시 임금도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 순으로 자동 정렬된다. 고객의 금융거래 패턴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개별화 된 마케팅 기능도 적용했다.

스마트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는 개인 신용대출 상품도 신용도가 높은 고객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



21일 오후 광주신세계 '키친 앤 다이닝 페어' 행사장이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유명 주방용품 브랜드 저렴하게 장만하세요”

광주신세계 25일까지 최대 70%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민도)는 오는 25일까지 테이블웨어와 주방용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키친 앤 다이닝 페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인기 주방용품 브랜드 20여개가 참여한다. ‘테팔’의 쏘 인텐시브 프라이팬을 4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고, ‘헵켈’ 역시 5스타, 4스타 블록 세트를 신년 특가로 50~60% 할인한다.

지하 1층 행사장에서는 ‘실리트 창립 26주년 특별 할인전’과 ‘덴비 특별전’도 동시에 열린다.

/박기용기자 pboxer@

업계 13위 호반, 3위 대우건설 품나

본입찰 제안서 단독 제출...26일 우선협상자 선정 가능성 높아

건설업계 시공 순위 3위(2017년 시공능력평가 기준)의 대우건설 인수자로 호반건설이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매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업계 13위의 중견 건설사가 3위의 대형건설사를 인수하게 된다.

금융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산업은행이 진행한 대우건설 지분 50.75% 매각을 위한 본입찰에 호반건설만 입찰제안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은 단독입찰도 유효하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매각 조건과 가격 등 인수

조건에서 산은 측과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호반건설이 이달 26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호반건설은 산업은행이 매각하기로 한 지분 50% 가운데 40%만 우선 인수하고 나머지 10.75%는 3년 뒤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호반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3위 업체로 ‘호반 베르디움’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아파트 전문 중견

건설회사다. 최근 주택경기 활황과 수익성이 높은 택지지구에서만 아파트 사업을 진행해 ‘현금 부자’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자산총액이 7조원을 넘기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6년 기준 호반건설의 매출은 1조 2000억원으로 대우건설 매출(10조9857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 때문에 호반건설의 인수를 두고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꼴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또 두 회사가 독자 경영을 할지, 합병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양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하

면 10조7533억원으로 현대건설(13조7016억원) 뒤를 바짝 쫓게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도복권 (제790회)		2등번호	
당첨번호		숫자	
3	8 19 27 30 41	1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160,516,274	16
2	5개 숫자+번호 숫자일치	52,452,713	59
3	5개 숫자일치	1,280,394	2,417
4	4개 숫자일치	50,000	113,336
5	3개 숫자일치	5,000	1,812,992

한은 “최저임금 인상, 경제 성장 효과”

올 민간소비 증가율 2.7%·성장률 3% 전망

한국은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민간 소비가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0.1%포인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05%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2.7%, 성장률은 3.0%로 보고 있다. 전체 명목임금이 0%대 초중반 상승하며 가계 소득기반이 확대돼 이와 같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에서 임금을 상당폭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수익성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소폭 감소하더라도 경제 전반으로는 이같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를 1만~2만명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3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영업이 이익이 작은 기업에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들이 우선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봤다.

30인 미만 기업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지키면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포인트로 추산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7%다.

/연합뉴스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